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경제]

- WSJ: 이번주 경제 지표 발표 일정: 미 인플레이와 소매 매출
- WSJ: 미국 2월 일자리 발표 해부한다
- Bloomberg: 연준의 은행 SVB 위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 [미국 금융]

- The Economist: 스태그플레이션 때는 왜 상품 선물 투자가 빛을 발할까?

#### [미국 주택]

- WSJ: 연 15만불 이상 미 고소득자들, 왜 아직도 집 렌트하나

#### [글로벌 경제]

- WSJ: 에너지 가격 떨어지자 세계 경제 순풍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미 소매업장 물품 도난 증가...오프라인 쇼핑 회복 탓
- CNBC: 바이든 행정부, 항공사들에 가족 합석 요금 부과 금지 법안 추진

#### [보고서]

- 한국은행 뉴욕 사무소: 최근의 미국경제 상황과 평가(3월)
- 모건 스탠리 미국 주간 에쿼티 전략: Long and Variable Lags Are Here; Growth Expectations Remain Too High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 [미국 경제]

#### WSJ: Economy Week Ahead: U.S. Inflation and Retail Sales in Focus

이번주 경제 지표 발표 일정: 미 인플레이와 소매 매출

#### 화요일

- 미 2월 소비자 물가 지수(연방 노동부)
- 중국의 1월과 2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중국 통계국)

#### 수요일

- 미 2월 소매 판매(연방 상무부)
- 미 2월 생산자 물가 지수(연방 노동부)

#### 목요일

- 미 2월 신규 주택 건축 및 빌딩 허가 건수(연방 상무부)
- 미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연방 노동부)
-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발표

#### 금요일

- 미 산업 생산지수(연준)
- 미 3월 소비자 신뢰지수 예비치(미시간대)

## WSJ 기사

## WSJ: Real Time Economics- Labor Market Keeps on Humming 미국 2월 일자리 발표 해부한다

- 2월 일자리가 31만1천개 늘었고 실업률은 3.6%로 올랐다. 그러나 월별 임금 상승은 0.2%로 내려가 지난 12개월간 상승 폭은 가장 낮았다.

### [여전히 강한 고용]

- 채용은 줄지 않을 것이다. 31만1천개는 고용주는 여전히 채용에 목마르고, 경제는 탄탄하다는 말이다.
- 포스트 팬데믹 반등이 둔화하면서 일자리도 둔화하는 편이다. 하지만 팬데믹 전보다 양호하다. 지난 3개월간 일자리는 매월 평균 34만1천개 늘었다. 50만개인 1월 보단 크게 적지만 2019년보다는 크게 높다.

### [임금 상승세 둔화]

- 그런데 월별 시간당 평균 임금은 1월은 전월에 비해 0.3% 상승했는데 2월에는 전월 대비 0.2% 상승에 머물러 임금 상승세는 둔화하고 있다. 그러나 1월 연간 상승 4.4%에서 2월에는 연간 4.6%로 상승했다.

### [인력 공급 회복세]

- 지난 2년간 인력난을 겪었다. 연방 정부 현금 부양책과 경제 재 오프닝에 따른 매출 상승으로 덕분이었다. 그런데 1월과 2월에 노동 인력 공급이 눈에 띄게 회복되었다.
- 특히 노동 인력 참여율은 1월과 2월에 62.4%에서 62.5%로 늘어나 팬데믹 초반 이래 최고치를 상승했다. 특히 25세~54세 인력은 1월의 82.7%에서 팬데믹 전인 83.1%로 회복되었다.
- 인력 공급이 빠르다 보니 임금 상승세도 위에 밝힌 바대로 둔화하였다. 관리직이 아닌 인력의 임금은 1월의 5%에서 지난 3개월 동안 연간 4.2%로 훨씬 더 둔화하였다.

### [활발한 중년층 노동 비율 회복]

- 25세부터 54세까지 연령층의 고용률은 80.5%로 팬데믹 이래로 거의 회복되었다. 즉, 2020년 2월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 그러나 2001년 이래로 고용률이 최고치였던, 2020년 1월의 80.6%에는 조금 못 미쳤다.

### [업종마다 고용 차이]

- 환대 산업, 식품 서비스, 헬스케어, 소매, 공무원직은 고용이 늘고 있는 반면에 금융, 보험, 정보 쪽은 올해 현재 줄고 있다. 구글, 아마존 등 IT 대형 회사들의 경우 해고 폭이 컸다.
- 특히 2월에 늘어난 일자리의 거의 반수가 소매 업종, 식당, 술집, 호텔업이었다. 이 숫자는 팬데믹 이전 대부분의 달보다 더 큰 비율이다.

### [이코노미스트들의 의견]

- Gus Faucher, PNC: 2월 보고서를 보았을 때 연준이 3월에 0.5% 올릴 것 같다.
- Ryan Sweet and Nancy Vanden Houten, Oxford Economics: 임금 상승 폭도 줄고 노동 참가율도 증가하다 보니 0.5% 올릴 것 같진 않다.
- Kathy Bostjancic, Nationwide: 일자리도 그렇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았을 때 0.5% 쪽일 수 있다.
- Joe Brusuelas, RSM US: 1월과 2월 일자리 추정치가 과장될 수 있다. 2개월 평균인 40만7천5백보다 오히려 20만명에 가까울 것이다.
- Charlie Ripley, Allianz Investment Management: 일자리 보고서의 행간을 보면 노동시장이 풀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희미한 신호를 읽을 수 있다.
- Greg Daco, EY: 경색된 노동 시장이 완화된다는 좋은 소식이다.

WSJ 기사

### **Bloomberg: Everything We Know About How the Fed Is Handling the SVB Crisis**

#### **연준의 은행 SVB 위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 SVB(실리콘밸리뱅크)는 실리콘밸리와 스타트업에 초점을 맞춘 유일한 상장 은행인데 파산으로 인해 기술과 금융 산업의 영향을 주고 있다.
- **어떻게 파산됐을까?** 3월 8일 은행의 모회사인 SVB 금융 그룹은 18억 불 손실을 입고 포트폴리오에서 2백10억 불의 주식을 매각했으며, 재정을 강화하기 위해 22억 5천만불의 신주를 매각한다고 발표. 이에 놀란 저명한 투자자들은 고객들에게 돈을 인출하라고 지시 또는 조언했다.
- 불과 이틀 후에 신규 주식 조달이나 구매자 찾는 노력을 포기했다.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SVB 예금자 자금 완전 보호 약속했다.
- **예금자들에 대한 여파는?** 다른 금융기관으로의 전업을 맞기 위해 연준은 현금이 부족한 은행들에 단기 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 **연준의 행보는?** 더 높은 금리 정책을 시사했지만 최근 금융 시스템 쇼크 때문에 애초 금리 인상 예상 폭 보다는 인상 폭이 작을 것으로 투자자들은

보고 있다. 연준이 강한 금리 인상 의지와 최근 금리 쇼크에 대한 우려 사이에 균형을 취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

- **글로벌 금융계가 받고 있는 여파는?** 미 주식 선물은 오전 현재 약간 오른 거래 추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 정부가 예금자와 은행들을 지원할 것이라는 소식에 미 국채는 뛰었다. 달러 약세인 반면 엔화 강세에다 투자자들은 금융 혼란의 피난처를 찾는 상황에서 금이 강세를 보였다.

Bloomberg 기사

### [미국 금융]

#### The Economist: Why commodities shine in a time of stagflation 스태그플레이션 때는 왜 상품 선물 투자가 빛을 발할까?

- 요지: 상품 선물(곡식, 철강 등 원자재 선물)은 고수익에다 주식 같은 다른 자산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인플레이로부터도 보호된다.
- Credit Suisse의 Global Investment Returns Yearbook가 1900년부터 2022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진단했던 것이 있다. 주식과 채권이 인플레이를 손쉽게 이겼다는 것. 평균 연이율이 각각 5%, 1.7%. 그러나 고물가 때는 둘 다 성과가 나빴다. 인플레이가 4%를 넘으면 실질 채권 수익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7.5%되면 주식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것. 구체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때는 주식과 채권은 -4.7%, -9%를 각각 기록했다. 장기적으로만 이들 두 개의 자산이 인플레이 헷지 역할을 한다는 것.
- 그렇다면 상품선물은? 인플레이의 잦은 주범으로서 효과적인 헷지 역할을 한다. 위 발표에 따르면 달러 투자자들에게 연 수익률이 6.5%로 주식 5.9%보다 낫다. 상품 선물 수익은 주식 동향과 상관없으며 채권과도 반대로 움직인다.
- 역사적으로 주식과 상품 선물 자산에 똑같은 비율로 투자했을 경우 주식에만 투자한 것보다 나았으며, 변동성도 4분의 3으로 줄었다.
- 물론 상품 선물도 수익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2008년 2월부터 심한 손실을 입었다. 상품 가격 지수는 실제 급락했고 2021년 9월이 되어 회복되었다. 또 다른 약점은 시장이 협소하다. 총 글로벌 투자 자산 시장은 2백30조 달러인 반면 이 시장은 5천억 달러로 0.2%에 불과하다.
- 파월이 계속해서 나쁜 소식만 전할 때는 상품 선물은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다.

The Economist 기사

### [미국 주택]

#### WSJ: Three Million U.S. Households Making Over \$150,000 Are Still Renting 연 15만불 이상 미 고소득자들, 왜 아직도 집 렌트하나

- 미국 인구 조사국의 5년 추정치에 따르면 연간 15만 달러 이상을 버는 고소득 미국인 중 집을 사지 않고 임대를 해서 사는 가구의 수는 2016~2021년 사이 87% 증가해 3백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몇 년간 미국에서 15만 달러 이상을 버는 고소득층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기지율과 주택 가격이 더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소득 세입자들이 새로운 도시로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유연성을 유지하기를 원하면서 임대를 더 선호하게 된 것이다.
- 이러한 추세에 따라 부동산 투자 기업들과 주요 아파트 개발업자들은 높은 임금을 받는 전문직 종사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많이 갖춘 건물, 매매를 하지 않고 임대를 위해 설계된 단독주택 등에 주목한다. 소비력이 높은 고소득자들의 임대 시장 유입이 커지면서 임대료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WSJ 기사

## [글로벌 경제]

**WSJ: Global Economy Gets Tailwind From Falling Energy Prices****에너지 가격 떨어지자 세계 경제 순풍**

-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하면서 세계 경제 성장이 탄력을 받고 소비자와 각국 정부가 받던 경제적 압박이 완화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천연가스 가격의 하락이 유럽 생산량을 1.5% 늘릴 수 있다고 추정했다.
- 세계 시장은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 중단 조치에 적응했고, 긴급 비축되어 있던 석유가 방출되면서 석유의 배럴당 가격이 지난해 중반 이후 약 3분의 1 이상 떨어졌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인 약 77달러까지 떨어졌다.
- 따뜻한 겨울 날씨와 수입 증가에 힘입어 유럽의 천연가스 도매가는 지난 여름 이후 90% 폭락, 202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 이에 에너지 위기를 겪으며 경기 침체에 빠졌던 유로존 국가들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반등했다. 낮은 에너지 가격이 다른 분야에서 소비자 지출을 늘리며 인플레이 압력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WSJ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Shoplifting Climbs as In-Store Shopping Returns****미 소매업장 물품 도난 증가...오프라인 쇼핑 회복 탓**

- 미국의 주요 소매업체들에 따르면 상점에서 직접 쇼핑하는 사람들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소매업장에서의 물품 절도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Target Corp., TJX Co.'s, Macy's Inc. 등의 소매업체들은 “상점 내 절도의 증가세가 매출 성장 속도보다 빠르다”라면서, 마진에도 위협을 받고 있음을 호소했다.

- 특히 상점에서 대량으로 물건을 훔쳐 온라인에 재판매하는 등의 조직적인 소매 범죄가 늘어나면서, 소매업자들은 상점에 경비원과 카메라를 추가로 배치하고, 절도 전과자를 식별하는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WSJ 기사

### **CNBC: Biden administration urges Congress to ban airlines from charging families to sit together**

#### **바이든 행정부, 항공사들에 가족 합석 요금 부과 금지 법안 추진**

- 바이든 행정부가 14세 미만의 어린이와 함께 여행하는 가족이 인접 좌석을 요구할 경우 항공사들이 추가 요금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의회에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호텔, 항공사, 은행 등 산업 전반에 걸친 불필요한 수수료, 이른바 junk fees를 근절하겠다는 공언에 따른 조치이다.
- 이에 Alaska Airlines, American Airlines, Frontier Airlines, United Airlines 등의 항공사가 추가 요금 없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여행객이 함께 앉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CNBC 기사

### **[보고서]**

#### **한국은행 뉴욕 사무소: 최근의 미국경제 상황과 평가(3월)**

유익한 자료입니다.

한국은행 보고서 원문

#### **모건 스탠리 미국 주간 에쿼티 전략: Long and Variable Lags Are Here; Growth Expectations Remain Too High**

- While this past week witnessed the sudden collapse of SVB, the real story for equity markets is the impact of the Fed's actions over the past year.
- Earnings growth expectations remain materially too high, and markets are now likely to price that risk more quickly.

모건 스탠리 보고서 원문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 "SVB 파산은 초고속 금리인상 결과"... 연준 긴축에 제동걸릴 듯"

### "연준, 금리인상 속도 무모했다는 것 알게 될 것"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갑작스러운 파산과 관련해 지난 1년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밀어붙인 초고속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결국 올 것이 온 것'이라는 반응이 시장에서 나온다.

초저금리로 넘쳐나던 유동성이 금리 인상으로 급속히 말라붙으면서 그간 유동성이 쏠린 대표적인 분야인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의존도가 높은 SVB에서 가장 먼저 사고가 터졌다는 것이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SVB의 파산 이후 시장 참여자들이 그간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값싼 자금을 대한 접근이 차단되고 경제의 취약함이 드러났다고 보고 앞으로 더 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unsubscrib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